

BRUCE SILVER Business Rules

다큐멘텀(Documentum)과 EMC: 숙명인가 모략인가?

글 / 브루스 실버(BRUCE SILVER)

독자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초대형 기업 콘텐츠 관리 업체인 다크멘텀(Documentum)이 디스크 드라이브 대기업 EMC에 인수됐다는 발표를 듣고 필자 역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그 직후 이번 통합이 어떻게 ‘불가피’ 했는 지에 관한 일상적인 전문가들의 발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이 친구들은 아마 AOL-타임워너 역시 불가피하다고 했을 것이다). 불가피성 여부를 떠나 정보 수명 관리(ILM)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시장을 재 정의하려는 EMC의 노력과 더불어, 17억달러 규모의 이번 거래는 이제 한발 뒤로 물러나 그것이 현재의 콘텐츠 관리 사용자와 업계 전반에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바라볼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좋은 출발점은 ‘콘텐츠’의 의미와 ‘정보’라는 한층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내는 것일 게다. 전통적으로 디지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이른바 ‘콘텐츠’라고 하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구조화’와 ‘비 구조화’로 구분돼 왔다. 대대로 아날로그를 고수하던 의료용 엑스레이나 음반 및 장편 영화 등의 업계가 폭발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사실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 매체가 기업용 콘텐츠 관리 측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할 사람들은 드물다.

이번 발표에 이어 여러 매체 보고서들은 비 구조화라는 개념이 저장소에 저장된 이후 수정되지 않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고정 콘텐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Centera’라고 하는 대용량의 고정 콘텐츠를 보관하기 위해 설계된 독자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을 판매하는 EMC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그럴 듯한 관련성이 유용할 것이다. Centra의 이른바 콘텐츠 주소 스토리지 구조는 낮은 메가바이트당 비용을 빠른 검색 시간 및 삭제 불가능성과 결합하고

있다. Centra를 비롯한 기타 콘텐츠 주소 스토리지 형태는 ECM 애플리케이션에는 이상적이지만, 다크멘텀의 수정 가능 콘텐츠 주소보다는 IBM이나 파일넷(FileNet)의 고정 콘텐츠가 더욱 많이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의문은 기업 콘텐츠 관리(ECM)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 스토리지가 하는 역할이다. 기업용 기술로써 ECM은 실질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ECM은 공급자 제조 개념으로, 이미징이나 프로세싱에서부터 수정 가능한 문서 관리, 보고서 관리(COLD), 웹 콘텐츠 관리, 디지털 자산 관리, 공동 작업 및 전자 기록 관리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형태의 콘텐츠를 관리할 단일 스위트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다큐멘텀의 수정 가능 콘텐츠 주소보다는 IBM이나 파일넷(FileNet)의 고정 콘텐츠가 더욱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의미한다. 개발 수준에서 이러한 특정 콘텐츠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거의 관심이 없지만, 단일 공급 업체 플랫폼으로써의 ECM은 기업 차원에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CIO들에게 어필하는 개념이 됐다.

폭 넓은 차원에서 전문 콘텐츠 관리 형식은 대용량 저장이나 메타 데이터 기반 검색 및 액세스 통제 등의 특정한 기술 요건을 공유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들어맞는 단일 크기의 플랫폼과 결

고속 마그네틱 디스크의 가격 대비 성능이 옅터컬을 추월했고, 사용자들 역시 대부분 로봇 같은 주변기기와 작별을 고하게 된 것을 반겼다.

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범주가 두 가지로 확실히 구분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보를 저장소에 넣어주는 콘텐츠 제공자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정보를 재빨리 빼가는 콘텐츠 소비자를 강조한다. 첫 번째 범주에는 문서 관리, 웹 콘텐츠 관리, 공동 작업 및 전자 기록 관리 등이 있다. 두 번째 범주에는 이미징, 보고서 관리 및 디지털 자산 관리(고정 콘텐츠)가 포함된다.

ECM이라는 개념은 공급자가 두 가지 범주 모두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선두 공급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기반을 접하지만, 대부분은 두 범주 중 한쪽으로 심하게 의존한다. 정보를 넣는 쪽은 다큐멘텀, 스텔런트(Stellent), 비그네트(Vignette), 인터우븐/아이매니지(Interwovwn/iManage), 오픈텍스트(Open Text) 및 허밍버드(Hummingbird) 등이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공동 작업이나 제한적 설정 모두에서 사용자가 수정 가능한 정보를 제공, 승인, 공개 및 유지하기 쉽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은 스토리지 구조나 검색 속도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콘텐츠 소비자 측 업체로는 IBM, 파일넷 그리고 모비어스(Mobius)가 있다. 여기서 핵심 가치는 기업의 사업 과정에서 지원을 얻어 대량의 고정 콘텐츠를 초 단위 이하로 검색하는 것이다. 이미징과 보고서 관리

는 대용량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그네틱 디스크를 사용하던 시절부터 대대로 스토리지 문제에 중점을 두어왔다. 사실 광 디스크 주크박스야말로 1980년대에 문서 이미징이 출현할 수 있게 한 중요한 혁신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고속 마그네틱 디스크의 가격 대비 성능이 옅터컬을 추월했고, 사용자들 역시 대부분 로봇 같은 주변기기와 작별을 고하게 된 것을 반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EMC가 다큐멘텀을 택한 것이 의외로 보인다.

마침내 EMC와 정보 수명 주기 관리(ILM)에 대해 알게 됐다. ILM은 정보가 액세스 빈도, 수정 가능성과 최종 형식, 소요되는 검색 시간을 비롯해서, 사용 패턴이 각기 다른 수명 기간을 통과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LM은 실질적으로 수정 가능/고정 콘텐츠의 분리를 연결하고 있으며, 수정 가능 콘텐츠까지 보관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삭제된다.

ILM은 스토리지 장치와 개별 IT시스템간의 링크를 파괴하고 스토리지를 기업 전반에 걸쳐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재구성한다. 이 서비스는 검색 시간이나 읽기/쓰기 대 읽기 전용을 의미하는 각기 다른 '서비스 레벨'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EMC의 관점에서 서비스 레벨 층 간의 정보(데이터 내지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스토리지 정책별로 자동화되고 개별 애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거치면서 분리된다. 오늘날 정책 기반 스토리지 관리는 백업이나 이메일 보관 및 기록 관리 등의 업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통상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레벨에서 자동화된다. ILM은 기업 정보 레벨에서 스토리지 관리를 자동화한다.

ILM은 기업 차원에서 모든 정보 스토리지의 통합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 기반 스토리지 장치와 더불어 정책 기반 보관과 기록 관리, 메타 데이터 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강화된 기업 규모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최고경영자 위주의 관점에서는 다큐멘텀이 안정맞춤인 셈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까지 ECM의 가치 사슬을 재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번 초대형 거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현재 불가피한 것은 기업 서비스로서 스토리지의 가치가 ECM 논리로 주입된다는 것이다.

